

광주시, 호남권청소년센터 유치 추진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민관 협치 공모 준비 박차
이용 수요·접근성·연계시설·인적자원 등 강점 부각

광주시는 호남권역(광주, 전남·전북, 제주) 내 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국립 치료·재활시설인 ‘국립호남권청소년센터’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소년센터’는 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자립·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이다.

현재 청소년센터는 경기도 용인에 국립중앙청소년센터(2012년 개관), 영남권에 국립대구청소년센터

(2021년 개관) 2개소 등이 운영중이지만, 접근성의 한계로 호남권역 청소년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2019년 지역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태스크포스(TF)팀의 제안을 시작으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여성가족부 건립 지속 건의, 국비 확보 노력,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 요청 등 사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

그 결과 2022년 여성가족부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는 성과로 거뒀지만, 전북 익산시가 유치전에 참여하면서 광주와 익산시 대상 공모사업으로 최종 반영

됐다.

여성가족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한 공모 선정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월 초 공모평가기준 시달을 시작으로 1개월간 공모제안서 작성기간 부여, 3~4월 심사를 거쳐 6월 중 대상 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용 수요 규모, 제주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호남권역 내 교통요충지인 지리적 이점,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연계시설, 청소년상담사 등 풍부한 인적자원 등의 강점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의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됐으며, 광주 유치가 결정될 경우 건립과 운영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역 대학,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해 이달 중에 ‘(가칭)국립호남권청소년센터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현장 활동가,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등과 협업해 ▲유치당위성과 차별화 전략 ▲국립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협력방안 ▲지역 자연 및 문화자원 연계방안 등을 발굴해 공모제안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호남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힘을 시기에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출범

이사장 최영준·초대사장 김선옥 임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담당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초대 이사장에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 사장(63), 초대 사장에 김선옥 (새문화예술협회 이사장(64)을 임명했다.

문화재단은 문제부 산하 단체로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한 콘텐츠를 진흥·보급하고 국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문화, 예술, 콘텐츠, 홍보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했다.

조직은 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경영관리팀, 문화사업개발팀, 문화유통팀, 대외협력팀, 어린이문화팀, 서비스사업팀 등 6개 팀(132명)으로 편성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기능인 콘텐츠창·제작과 교류,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 종전의 아시아문화원은 그 기능을 문화전당으로 이관하고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해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단은 조직 정원 범위 안에서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희망을 받아 고용을 승계했다.

문화재단은 앞으로 콘텐츠 활용·유통, 어린이 체험·교육, 문화상품 개발, 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 등 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분야 업무를



최영준

김선옥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전당에서창·제작한 문화콘텐츠를 국내외 예술시장(아트마켓)에 소개하고 유통경로를 다각화해 콘텐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업무다.

또 ‘브런치콘서트’, ‘슈퍼플레이스’,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대중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운영, 문화상품 개발,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문화전당 방문자를 확보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황희 문제부 장관은 “아름답게 개성으로 2015년에 문을 연 문화전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화재단이 차별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문화발전소인 문화전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희 기자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사진)을 내정했다.

아들의입사지원서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물러난 지 27일 만으로, 임기말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해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완만하게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김 신임수석의 임명을 구두 승인했으며 이날 현지에서 재가할 예정이다. 김 신임수석의 임기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김 신임 수석은 합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광주지법·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강병은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와 영암군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에서 조선기자재와 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칸플랜트(株)를 방문, 현장한 대표로부터 플랜트 제조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방문

대불산단서 애로사항 청취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영암 대불산단의 칸플랜트주식회사를 방문해 기업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칸플랜트주식회사가 기업경영 건전성, 청년 채용 실적, 직원 복지 후생 등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 보여준 우

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전남도로 부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칸플랜트주식회사는 조선기자재, 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선박용 비상정지시스템, 선박과 육지 간 자동 통신 연결 시스템, 전력선 통신방식을 이용한 선박용 원격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매출 86억 원,

전년 대비 신규 채용 8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일하는 도내 대표 선박 제조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 증가, 신규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힘써 돕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전남도,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해제

카페 등 11종 시설은 유지
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연장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17일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방역패스 개편은 도민의 불편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설 연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총 6종으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또한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됨에 따라 사적 모임은 2월 6일까지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목포·나주·영암·무안 등 4개 시군은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집중 구분 없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기준 대규모 점포 시설 내 식당, 카페 등은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별도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고객행위를 금지한다.

전남도는 시설별로 코로나19 감염위험 원칙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향후

조정할 예정이다.

방역패스는 11종 시설에 적용한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만 가능하며, 행사·집회 방역수칙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현행과 같다.

전남도는 돌과 감염 확산세에 따라 기관별 선제검사를 확대해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증원하는 등 확진자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본 마스크 착용과 함께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모두의 안전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 및 적극적 방역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본사인사

<1월 18일자>

▲우성진 사회부장

▲김영민 제2사회부장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절어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